

새로운 ITS 거버넌스 모델, 지자체 ITS 발전 협의회 출범 준비과정



ITS Korea
사업지원본부
사업관리실
배명환 실장

서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도시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상황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2009년부터 ITS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73개 지자체에 국비 5,550억원을 지원, 도시부 도로 15,554km(구축률 18.7%)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ITS 사업의 주요성과는 도시부 도로의 혼잡 완화 및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등 교통흐름 관리와 교통안전 증진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 통행속도 8.4% 향상, 통행시간 7.5% 단축, 경제성분석 효과 B/C 2.02, NPV 86.7억원 등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더불어 ITS 운영의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업계 및 학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의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회'와 같은 공식적 거버넌스 조직의 구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협의체는 전국 단위 ITS 발전은 물론,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원체계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새롭게 구성된 '지자체 ITS 발전 협의회'는 ITS협회 및 ITS학회와 교통학회, 지자체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교통관리와 안전 증진, 미래교통의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 발굴, 전문성 강화, 정책제언 등 지속 가능한 지자체 ITS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지자체 ITS 협의체 구성 및 소개에 앞서, 관련 유사 분야에서 운영 중인 협의체 사례를 살펴보았다. 관련 분야 산업의 산·학·연·관이 연계되어 활동하는 협의체는 다양하지만, ITS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최근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례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바로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와 ‘스마트도시 전국지자체협의회’이다.

먼저,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는 국가적인 C-ITS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해 민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교류, 공동연구, 표준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C-ITS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공동의장단, 공공사업협의체, 운영위원회, 5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조직되어 체계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조직도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전국지자체협의회’는 스마트도시 구축, 운영 추진 지자체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의 확산과 산업 진흥을 위해 상호협력 및 전략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마트도시 전국지자체협의회 역할

1. 정보공유 : 지자체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 우수 사례, 기술 동향 등 공유
2. 협력도모 :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3. 정책제언 :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제언
4. 역량강화 : 스마트시티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 역량 강화

이 두 협의회의 운영 성과는 뚜렷하다.

‘자율협력주행산업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C-ITS 통신표준 및 인증제도 마련, 보안인증체계, 데이터 공유·연계, 법·제도 개선안 등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스마트도시 전국지자체협의회’는 정책방향 결정 및 개선, 지자체 우수사례 및 기술공유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전국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사례는 ITS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ITS 산업 분야는 스마트시티 분야와 마찬가지로 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의 지속 가능한 ITS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및 산업 종사자들 간 정보 및 지식공유, 정책제안, 자원조달, ITS 고도화, 상호협력, 신규 사업발굴 등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확보를 위한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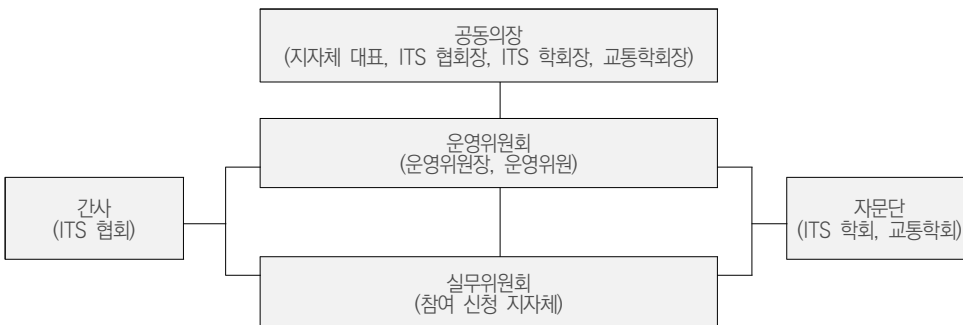
협의체 구성과 방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는 국내 산·학·연·관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무엇보다 지자체 ITS의 지속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관 중심의 사업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계를 대표하는 ITS 협회와 학계·연구기관을 대표하는 ITS학회, 교통학회를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운영하고, ITS학회, 교통학회는 자문기관으로 협의체에서 제안한 정책, 로드맵, 발전방향, 우수지자체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ITS협회는 각 위원회 간사기관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체 참여는 간사기관인 협회에 가입신청서 제출 및 접수 확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야 참석이 가능하며, 실무위원회는 모든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 구성

공동의장은 협의회 각종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대외적으로 협의회를 대표한다. 운영위원회는 협의체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관리와 운영규정 제·개정, 조직구성 및 업무조정,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담당한다. 실무위원회는 협의체의 실질적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보공유와 사업 기획, 정책 제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위원회 역할

1. 협의회 구성원 간 지자체 추진 현황, 우수사례, 기술 동향 등 정보공유
2. 협의회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3. ITS 정책에 대한 의견 개제 및 정책 제언 활동
4. ITS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5. 지자체 ITS 평가지표 및 우수지자체 선정 관련 의견 개제 및 평가 지원
6. 기타 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운영방식

협의회 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동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며, 학회 춘계·추계 학술대회에 연계해 진행된다. 정기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 ITS 지표를 기반으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자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동의장의 의결에 따라 서면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협의체의 주요 목적은 협회 및 학회와 지자체 간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교통관리의 효율화와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 미래 교통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 더불어,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지자체 실무자 역량 강화 등 활동을 통해 ITS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향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의견 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2025년 4월 말 기준 총 57개의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를 신청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ITS 협의회 참여 지자체

1. 광역자치단체 (13/17) : 특별·광역시(6/7), 도(4/6), 자치도(2/3), 자치시(1/1)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경기도, 경남, 경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2. 기초자치단체 (44/151) : 경기도(13), 강원도(6), 경남(14), 경북(3), 전남(3), 전북(1), 충남(2), 충북(2)
고양, 과천,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용인, 의왕, 파주, 강릉, 속초, 원주, 춘천, 양양,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진주, 창원, 통영, 거창, 고성, 산청, 하동, 함안, 함양, 합천, 경주, 구미, 영천, 광양, 순천, 여수, 군산, 아산, 천안, 제천, 청주

키오프 회의 및 논의 경과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 참여를 위한 지자체 대상 안내와 참여 독려는 2025년 3월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소 촉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ITS의 중요성과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5년 한국 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협의체의 본격적인 출범을 위한 ‘키오프 회의’가 특별세션 형태로 마련되었다.

이번 키오프 회의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28명의 실무자가 참석하였고, ITS 학회 및 협회,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60여 명이 함께하며 협의체 설립의 취지와 배경, 구성체계 및 주요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협의체 구성 취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지자체 ITS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활성화되기 위해 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협의체 설명 외에도, 경기도 ITS 구축 우수사례 발표와 경기도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 ITS 사업지원 내용, 스마트지수(ITS지표) 기반 지자체 ITS 진단·평가 체계 개발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특히, 경기도 ITS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광역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경찰청 표준규격에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참석 지자체들은 이러한 사례들과 같은 우수한 기술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 키오프 회의



향후계획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한 상태는 아니며, 금번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의견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협의체의 공식 출범은 2025년 5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ITS 아태총회 행사와 연계하여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출범식까지의 사전절차 및 계획이 다음과 같이 계획되어 있다.

ITS 협의체 추진계획

일정	내용
'25.4.30~5.9	지자체 협의체 세션 발표자료/회의록 공유 및 의견수렴
'25.5.9~5.13	지자체 대표(공동의장) 및 운영위원 지자체 추천
'25.5 (미정)	지자체 협의체 개회식 준비를 위한 임시 운영위원 회의 * (참석대상) ITS협회·학회, 지자체(참여 신청 57개, '25.4.30 기준) * (주요안건) 협의체 운영규정(안) 확정 및 지자체 대표(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선출 등
'25.5.28	지자체 협의체 출범식(5/28(수) 14시, 수원컨벤션센터)

공식 출범식은 협의체의 위상을 외부에 알리고, 전국 지자체 간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후 정기적인 회의와 실무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맺음말

국내 ITS 인프라 구축은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 2024년 말 기준 전 구간 100% 구축을 완료하였다. 반면, 지자체 도로의 경우 전체 83,141km 중 15,554km만 구축되어 구축율이 18.7%에 불과해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확산 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단순 장비 구축을 넘어 AI·IoT·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기존 인프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설계 등 지속 운영 가능한 ITS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ITS 구축의 효과는 단기간 내 가시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특성 상, 교통 지능체 혼잡도 분석 등 지속적인 효과분석과 투자 대비 성과가 뚜렷한 사업 아이템 발굴, ITS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등을 병행해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자체 ITS 발전 협의체는 단순한 논의체를 넘어 정책 기반 형성과 확산 전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협의체는 지자체의 실질적 참여를 전제로, 각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전국 ITS 산업의 균형 발전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